



<http://blog.naver.com/gundal0908>

# 10월 깐달건달, 캄보디아 구역확장

## 캄보디아 깐달건달, 10월 일정

Mon	Tue	Wed	Thur	Fri	Sat	Sun
					1	2
					씨엠립 여행 (9/29~)	
3	4	5	6	7	8	9
씨엠립 여행 (~10/3)	대청소 CDP 회의			CDP 킬링필드 견학	월말보고서 작성	월말보고서 작성
10	11	12	13	14	15	16
CDP	CDP	CDP CD학생들과 회의	빈곤퇴치회의 우뎀네 가족파티	CDP	조정경기 장보기	대청소
17	18	19	20	21	22	23
CDP (농부최종선택) 빈곤퇴치 아띠시장 OT	한국어수업	CDP END POVERTY "아띠시장"	영어수업 유비 돌잔치 파티	CDP 쿠킹클래스 (잔치국수)	솜반데이트	대청소 다음 주 회의 메일살롱2
24	25	26	27	28	29	30
CDP 한국어수업	영어수업	까리따스 가드닝 한국어수업	CDP 영어수업	운동(탁구)	뚜얼슬랭 박물관	대청소
31						
CDP 수업취소....TT 뽀렉호 파고다 소 풍!						

# 목 차

간달건달들 -----	3
물금읍 신마적 ‘쭈쭈’ -----	4
양주동 사시미 ‘메익’ -----	7
범어리 오합마 ‘쫘쫘’ -----	16
양산 피바다 ‘망고’ -----	21
형님들의 나와바리, TAKDOL -----	26
플리마켓_End Poverty Campaign -----	27
형님들의 삼시세끼 -----	31
청소 다이어트 -----	32
위험한 초대2 -----	39
메익살롱 2탄 -----	48
우린 YDP 한다 -----	52
YDP-English class!! -----	53
Let's Enjoy Korean! -----	57
잔치국수/쿠킹타임2 -----	61
다~알링 65	
우린 CDP도 한다 -----	70
느낌이 좋다 -----	71
우리들의 CDP 적응기 -----	73
제1구역, 캄보디아 -----	78
따끄마으 맥주 축제 -----	79
본옴뚝(물 축제)를 보고 나서. -----	82
개인에세이 -----	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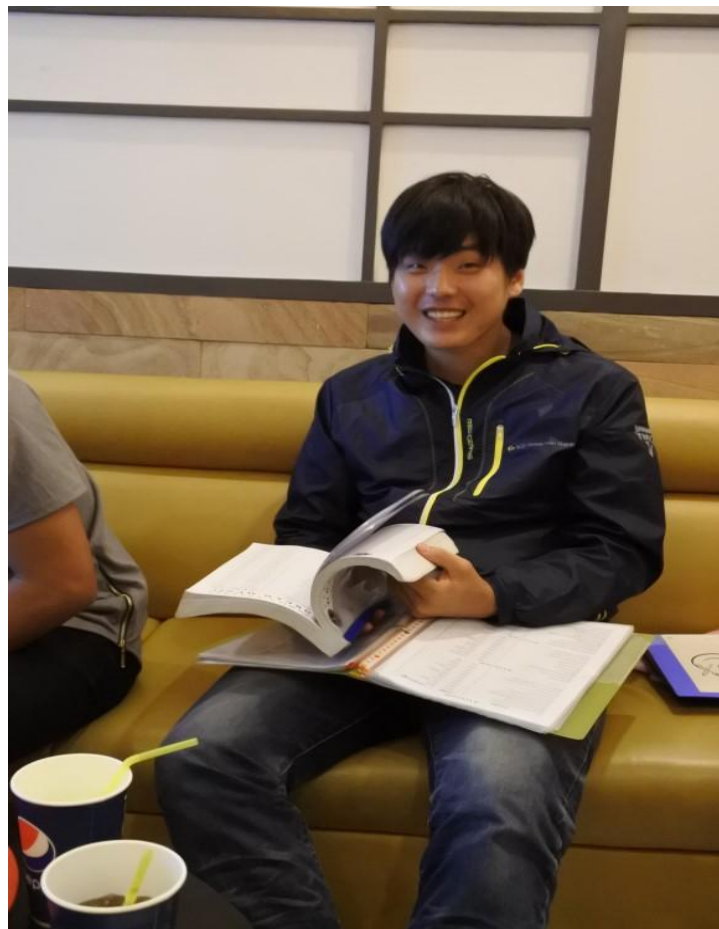
간달 건달들

## 망고가 본 쑤쑤

벌써 두 번째 타인소개 시간이 왔다. 이번 달에는 여전히 미지의 세계인 양수오빠에 대해 써보려고 한다.

### 1. 무한유스사랑

양수오빠는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한다. 춤추는 것도 좋아한다. 그렇다고 오빠가 흥이 많은 건 아니다. 진정한 흥부자는 까리타스에 두 명이 있는데 바로 우덤과 티이다. 그들은 시도때도 없이 흥얼거린다. CDP 를 하며 땅을 파다가도, 운전을 하다가도, 길가의 풀을 꺾다가도... 양수오빠는 그런 타입의 흥부자는 아니다. 양수오빠는 판이 깔려 있어야 흥이 오르는 사람이다. 우덤과 티는 판이 필요하지 않은, 그들이 서있는 그곳이 바로 춤판이고 노래판이 된다면, 양수오빠는 판이 깔려야 맘잡고 노는 스타일이다. 노래방에 가거나, 방안에서 이어폰을 끼고, 혹은 파티처럼 사운드가 뽕뽕한 장소가 마련되어야 오빠는 흥을 올린다.



그런 오빠에게 다소 난감한 상황들이 아띠타임을 진행하면서 자주 벌어지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바로 아띠들과 우리의 첫 만남시간이었다. 그 어색하고 묵직한 기류를 떨쳐내기 위해 양수오빠는 창피함을 무릅쓰고 노래를 불렀고, 그 이후 아띠들은 양수오빠가 마치 찌르기만

하면 노래가 나오는 주크박스인양 "쑤쑤, 쯤리응!"(노래 불러줘!)을 외친다.

사실 위와 같은 상황을 어느 정도 오빠가 자초한 바가 있다. 아띠타임에 유스들이 너무 안오자, 오빠는 자신이 노래를 부를테니 수업에 와달라고 거래를 했으니까. 그만큼 오빠는 최대한 많은 유스들과 친해지고 싶어한다. 최근엔 캄보디아 노래인 "baby, I am sorry"를 한국어 발음으로 받아 적어 와서 부르기도 했다. 유스들을 향한 무한한 사랑을 그들도 아는지, 유스들은 양수오빠를 많이 좋아하는 듯 보인다.

## 2. 플랜맨

오빠의 캄보디아 생활은 계획으로 가득하다.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오빠는 하루에 한편씩 미드 프렌즈를 보며 영어공부를 하기로 한 듯 보이고, 매일 일기를 쓰고, 한시간 정도 운동을 하기로 계획한 것 같다. 하루도 빠짐없이 자신이 세웠던 계획을 이행하는 오빠를 보면 신기하다. 내가 꽤 계획적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오빠를 보며 생각을 뜯어 고쳤다. 나는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이었다는 것을. 그만큼 오빠는 계획적인 사람이었다.

## 3. 초딩양수

양수오빠는 나보다 나이가 많지만 가끔은 어린애 같은 천진난만한 구석이 있다.오빠는 자신보다 여섯 살 어린 유스들이랑도 시시콜콜한 장난을 치면서 잘 논다. 그리고 치킨, 피자 하나에도 화를 냈다가 기뻐했다가, 기분이 요동을 친다. 업다운 스펙트럼이 좁은 나로서는 오빠의 다이내믹한 기분 변화가 신기할 따름이다.

또 가끔 오빠는 요리를 하고 있는 내 옆에서 오늘 까리따스에서 유스들이랑 어떻게 놀았는지 신나게 설명해준다거나, CDP 필드에서 오늘 너무 힘이 들었다며 마음껏 생색도 낸다. 오빠가 아니라 동생이었다면, "우와 그랬구나~" 라고 맞장구 쳐주었을 텐데, 나는 매번 시큰둥한 표정으로 답했던 것 같다. 살짝 미안해진다. 매번 항상 듣고는 있었다고, 오빠에게 말해주고 싶었다.



## 4. 취향존중

오빠는 나와 영화, 책, 노래 그 어느 것 하나 취향이 같지 않다. 심지어 식생활부터 생활패턴까지. 한 지붕 아래에 이렇게 다른 두 사람이 같이 살게 된 것도 신기할 정도로

오빠는 나와 다른 점이 많다. 하지만 이렇게 취향이 다르더라도 오빠는 나와 영화, 책에 대한 생각을 많이 공유한다. 가장 최근에 오빠는 영화 <미드나잇인파리>의 결말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그 마지막 장면을 유독 싫어했다. 하지만 나는 그 장면이 영화가 말하려는 메시지의 핵심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왔고, 나와 반대된 오빠의 생각에 적잖이 놀랐었다. CDP 필드에서 혹은 길을 걷다가 오빠와 나누게 되는 그런 대화는, 지친 나에게 상당히 흥미로운 대화거리이다.



## '쫄쫄'가 경험한 '메익'

제가 이번에 소개할 팀원은

바로~~~

우리 팀의 맏이인 '메익'누나입니다. :)

메익 누나는 우리 팀에서

**'총무'**이자

**'통역관'**이자

**'사진작가'**이자

**'팀장'** 입니다. ㅎㅎ

정말 우리 팀을 위해 많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누나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큐!**



**이름 : 메익(본명:정도희)**

**나이 : 만 24 세**

**취미 : 드라마 보기, 장보기,**

**크메르어 공부, 사진 찍기**

**특기 : 장부 정리 및 문서 작성(?)**

**가격 흥정!**

자세한 소개는 이제부터~~

누나의 이름은?

*메익*

왜 메익 이냐 하믄?

누나가 캄보디아 하늘이 너무 이뻐서  
이름을 메익이라 지었다. :)



캄보디아 하늘이 정말로 이뻍니다~

누나는 우리 팀에서 총무 역할을 맡고 있다.  
우리들을 위해 돈 관리를 똑 부러지게 하고 있다.  
매일 가계부를 쓰고 돈을 계산하며  
앞으로 사야 할 물품들을 정리한다.  
돈 관리를 정말 잘 해서 돈 계산할 때 오차가 거의 없다. ㅎㅎ





우리의 돈이 들어있는 누나의 지갑~

다만 이곳에서  
미 달러(\$)와 현지 화폐인 리엘 (₺)을 모두 사용하는데  
가게마다 달러와 리엘의 환율이 달라서  
돈 계산을 할 때 누나가 골머리를 앓을 때가 많다.ㅠㅠ;;



매일 저녁 가게부를 정리하는 누나

누나는 요즘 크메르어 공부에 빠져있다.  
공부를 열심히 한 결과 나날이 실력이 좋아진다.  
이제는 현지 분들과 이야기를 주고받을 정도라고 해야하나? ㅎㅎ  
(몇가지 단어들을 조합해서 하는 대화이다. ㅎㅎ)

저번 한 번은 누나랑 같이 시장에 갔다가  
한 상인과 대화를 주고받은 적이 있었다.  
그때 그 상인이 누나에게 크메르어를 정말 잘한다고

'캄보디아에 얼마나 있었나요?'라고 물어봤는데  
누나가 '약 한 달 정도 된다.'라고 하니까  
크메르어 잘 한다고 칭찬까지 했었다.ㅎㅎ



누나의 단골가게 상인과 함께~

그리고 누나는 흥정을 정말 잘 한다.

캄보디아에서는 많은 가게가  
가격 정찰제를 하는 곳이 아니라서  
물건을 살 때 매번 흥정을 해야 하는데

누나가 흥정을 정말 잘 해서  
항상 저렴한 값에 물건을 산다.^^

완전 흥정의 달인이다~ㅎㅎ

누나에게 흥정하는 방법을 수 없이 배워 왔지만...

나는 여전히 흥정이 잘 안된다...ㅠㅠ

그래서 항상 시장에 갈 때 누나와 같이 간다.ㅎㅎ

그래야 싼값에 살 수 있으니까!~~~



누나랑 같이 다니는 Central market

누나가 한때 좋아하던 것이 있었다.

일명

'캄보디아 스타일 옷 사재기!'

누나는 이곳에 온 후 현지 옷에 빠져있던 적이 있었다.

현지 스타일의 치마와 바지 등등~ㅎㅎ

완전 캄보디아 풍의 치마를 좋아한다.;;

이곳에서만 소화할 수 있는 스타일의 옷들을...

(과연 귀국해서도 입을지는 모르겠지만...ㅎㅎ)





누나의 캄보디아 스타일 옷들~

누나랑 같이 시장을 돌아다니다가  
 이쁜 캄보디아 스타일의 옷이 있으면  
 막 훑어보고 마음에 들면 싸게 사버린다.ㅎㅎ  
 (이곳 옷들이 \$2~3 정도면 살 수 있어 저렴하다)  
 하지만 이제는 옷을 잘 사지 않는다.ㅎㅎ  
 (비슷한 옷들이 많아서 그런가?ㅎㅎ)



누나랑 같이 살아본 내가 관찰해 봤을 때  
누나는 정말 자주 먹는다. ㅎㅎ  
많이 먹는 건 아니지만 소량씩 자주 먹는다 해야 하나?



정말 잘 먹는 누나~

누나의 주된 간식은  
바게트와 고구마~~~  
커피와 요거트, 생과일주스~~~  
그리고 탄산음료!!!



누나가 자주 먹는 바게트!



수박 주스와 탄산음료!!!

누나가 캄보디아 와서 탄산음료를 자주 찾는다.  
한국에서는 피자에도 콜라는 안마셨다는데  
아무래도 더워서 탄산이 땡기나부다.ㅎㅎ

누나가 이곳에 와서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게 됐다.  
매일 우리의 활동이나 풍경을 찍는다.  
나날이 사진 실력이 좋아진다.ㅎㅎ



사진 찍는 누나의 뒷모습

내가 두 달간 봐온 누나는  
지금 현지에 잘 물들어 있다.  
처음에 왔을 때만 하더라도  
누나는 이곳 향신료가 익숙하지 않아  
현지 음식을 잘 먹지 못했는데  
이제는 많이는 아니지만 잘 먹는다. ㅎㅎ  
그리고 현지인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친해졌고  
이곳의 날씨와 생활 등 환경에 아주 잘 적응했다.  
완전 캄보디아 사람이 다 됐다! ㅎㅎ



우리 누나는 체형은 호리호리(?) 하지만 속은 강한 누나다.  
그래서 내가 많이 의지하는 사람이다.

*누나! 우리 같이 앞으로도 지금처럼 잘 해보자!*

- '쫄쫄' -

범어리 오합마 '쫄쫄'

### 메익이 말하는 '쫄쫄'

'종수야 우리 그 믹서기 뚜껑 어딴냐?'

'싱크대 선반 2 번째에 있어'

'종수야 어제 새로 산 건전지는 어딴어?'

'거실 식탁 위에

있어'

'종수오빠 저기 벌레 있어!!!!!!!!!!!!'

'기다려

봐~'

'종수야 이 길이 맞나?'

'이렇게 가다가 저기서 왼쪽으로 가면되'

*"종수야"*

아마 우리 사이에서 가장 많은 이름이 불리는 건 종수이지 않을까 싶다.  
나보다, 승연이보다, 양수보다 아마 살림은 더 잘하는 것 같다.  
행주도 삶고, 싱크대 정리도 하고, 쓰레기도 딱 깔끔하게 정리하고,  
배고프면 라면을 그냥 끓여먹기보다 스파게티를 만들어 먹는다.  
그리고 심지어 그는 형광등의 초크도 손볼 줄 알고 싱크대도 고칠 수 있다.

그냥 만능이다.



일도 잘하고





무거운 것도 잘 들고



주방 일도 잘하고, 정리도 잘하고

이 팀에서 총무의 역할을 하고 있는 내가 지갑 정리를 할 때면  
어느새인가 옆에서 돈을 세어서 얼마라고 말해주고,  
우리 팀에서 요리를 맡고 있는 승연이가 식사 준비를 할 때면,  
어느새인가 옆에 가서 또 주방보조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또 양수가 힘쓰는 일을 할 때면, 어느새인가 옆에서 양수를 도와주고 있다.  
정말 어느새인가. 그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 곁에 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 팀원들의 눈빛만 보고도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도움이 필요할지 귀신같이 알고 모든 것을 준비해준다.  
정말 귀신같다.

더 귀신같은 것은,  
분명 종수도 캄보디아가 처음인데 이미 여기서 살아본 사람처럼  
길을 다 알고 있다.

나가기 전에 항상 지도를 잠깐 보고 길을 익히긴 하는데  
지도 보는 시간이 단 몇 분일 뿐인데도 그의 머릿속 캄보디아 맵은  
골목골목까지 꿰뚫고 있어서 '솔직히 말해봐, 여기서 살아봤지" 라는  
나의 의심을 받기도 한다.

어떻게 처음 가본 길도 정확하게 아는지  
그냥 여기서 툭툭 기사를 해도 그 어떤 기사분들의 길 찾기 능력에도  
절대 뒤처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한다.

옆집에는 할머니가 함께 살고 계신다.

전에도 말했듯이

옆집이라기보다 옆방이 더 맞는 표현이지 않을까 싶은 곳.

아무튼 할머니는 항상 우리를 신경 써 주신다.

항상 우리 집 거실과 연결된 창문 하나를 여시고는  
손녀들 집에서 얻어오신 과일들도 나눠주시고 음료수도 주신다.

하지만 할머니와 우리는 손짓, 발짓, 눈빛,  
그리고 엄청나게 짧은 캄보디아 단어로 서로의 의미를 추측한다.  
난 할머니와 이야기할 때면 그런 온갖 추측들이 재미있긴 하지만,  
어느 순간 한계를 느껴 당황스럽다.

하지만 종수는 할머니와 꽤나 정확한 소통을 한다.

오직 손짓과 발짓, 눈빛으로만.

그래서 항상 할머니는 우리랑 이야기하시다가도  
답답하시면 쯤쯤를 부르신다.



아, 그리고 종수는 동물들과도 소통 왕이다.  
몇 안되는 캄보디아 단어마저도 통하지 않는 동물들과도 그는 소통 왕.  
강아지, 고양이 등 만나는 동물들을 쓰다듬으며  
관절 하나하나 마사지를 해주기 때문에

동물들은 종수만 보면 미친 듯이 달려든다.  
여기가 좀 수시니까 여기 좀 만져주라고 하듯이

CDP 활동에서 만나는 강아지들이 있다.  
처음에는 강아지가 커서 무서웠는데  
이제는 종수만 보면 미친 듯이 달려들며  
벌러덩 눕기도 하고 종수를 올라타기도 한다.  
그의 손길이 얼마나 시원하면 저럴까 싶다.



강아지 다리도 풀리게 한다는 그의 마사지



재미를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종수.  
여기서 자신이 어떤 일도 하지 않은 것 같다는 종수.  
요새 고민이 많아 보인다.  
재미라는 것을 찾으라고 강요하고 싶지 않다.  
찾으려고 하면 점점 늪으로 빠질 수도 있고,  
익숙함 속에서도 재미는 있기 마련이니까.  
다만 그에게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그가 이곳에서 어떤 일도 하지 않은 건 아니라는 것.  
무슨 일을 도맡아 하지 않았더라도 곁에서 도와주는 종수가 없었더라면  
아마 나나 다른 팀원들 모두 어떤 일도 해내지 못 했을 것이다.



예능에서 에릭남을 보면서 사람들은 말한다. 1 가정 1 에릭남.  
우리는 말한다. 1 팀 1 종수



## 수수가 본 망고

막내이지만 한번도 막내라 생각해 본적 없고  
물과 불처럼 나와 달라도 너무나도 다르지만  
그래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내가 소개할 친구는 "망고" 이다.



승연이는 아담한 편이다.  
하지만 별로 신경쓰지 않는다.  
키가 작아서 좋은 점이 많다고 웃으면서 이야기 하는 것을 봤을 때  
뭔가 멋있다고도 생각이 들었다.



위에 말했듯이 승연이와 나는 너무나도 다르다.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는 점이 한 두개가 아니다.  
지금부터 그 점들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첫번째: 그녀는 채식주의자 이다.

고기를 사랑하는 나로선 절때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다.  
다 둘째 치고 단백질은 어디서 보충하는 걸까?  
콩을 많이 먹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말이다. 역시 의문이다.

두번째: 요리로 힐링을 하다.

승연이는 우리 팀의 요리사이다. 그런데  
승연이는 요리하는 것이 힐링이 된다고 했다.  
이것 또한 나한테는 신기한 일이다.  
나 또한 많은 시간 요리를 배웠고 집에서 해먹지만  
요리를 하는 것만 재밌지. 재료를 다듬고 씻는 것,  
그리고 다하고 나서 정리를 하는 것  
그것도 자기가 먹지도 않는 요리를 하는 것에 힐링을 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라 생각한다.



세번째: 잠을 너무 안잔다.

승연이는 보통 밤 11 시에서 12 시 사이에 잠을 잔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새벽 3 시에 일어난다.

????????????????????

그리고 하루를 시작한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것을 바라기에

몸이 자연적으로 일어나 지는 걸까?

미스테리다.

그 밖에 이해는 되지만 너무도 다른 것은

영화보는 취향, 책을 보는 취향, 음악적 취향, 맛의 취향

등등등등등등

많다.



승연이는 놀라울 정도로 추진하는 능력이 좋다.  
막막했던 플리마켓의 시작도 승연이었다.  
그 후로는 물 흘러가듯이 진행이 되었다.  
자신감이라고 해야할까? 아니면  
두려움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인걸까?  
아직은 잘 모르겠다.



요리하는 모습이 멋있는 승연  
나는 가끔 승연이의 말에 감동을 받는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이겠지만  
뭔가 콕콕 찌르는 말들이 있어서 좋다.  
말에 누군가를 신경 쓰고 있다는 담겨있어서  
뭔가 모르게 포근한 느낌이다.

또 승연이는 배울게 많은 친구이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배운 것을 익히려고 노력중이다.  
생각해보면 알고 지낸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다 저렇다 표현 하기도 쑥스럽지만  
승연이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열정적인 꼬루. 승연  
영어 실력이 중이라더니 완전 잘한다.  
도희랑 승연이가 거의 나와 종수의 통역사 수준이다.

술과 커피를 좋아하고  
영화를 사랑하는  
우리 팀의 없어서는 안될  
망고  
앞으로도 잘 부탁해!

By 쑤쑤

**형님들의 나와바리,**

**TAKDOL**

## 플리마켓\_End Poverty Campaign

빈곤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배웠다.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그리고 주관적 빈곤이 바로 그것이다.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은 그 기준을 사회가 정한다. 이때, 개인은 그 사회에 속한 구성원으로서 그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배경에 영향을 받는 '객체'가 된다. 절대적 빈곤의 경우 국가의 생활수준에 따라, 상대적 빈곤은 국가의 복지와 평등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 이는 결국 둘다 객관적인 지표로서 사람을 이분법적으로 누군가는 빈곤, 누군가는 빈곤하지 않음으로 나누고 있음을 말한다.

반면, 주관적 빈곤에서 개인은 '주체'가 된다. 이제 개인은 내가 충분히 갖지 않은 무언가를 주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굶이 수치로 나타낼 필요도 없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 관념이어도 괜찮다. 아픈 사람에게는 건강한 신체가, 배우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충분한 교육이, 취직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양질의 일자리가 빈곤한 것이다.

*주관적 빈곤은 자신이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제 3자의 판단에 의해 어떤 객관적인 수준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 수준에서 결정된다.  
(출처. 네이버 사전)*



왜 굶이 '부족함', '결핍' 이라는 편한 말을 놔두고 '빈곤'이라는 어려운 말을 사용하는 것일까. 빈곤퇴치 캠페인의 핵심은 앞서 말한 주관적 빈곤 즉, '나'의 결핍, 부족함을 사회 문제로 확장해보는 것에 있다고 생각한다. 내게 건강이 빈곤하다면 단순히 병원에 가는 것으로 끝낼 게 아니라, 기관지 질환이 생긴 원인으로 극심한 자동차 매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에 있지

않은지, 또 내게 잠이 빈곤하다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없는 노동정책을, 음식이 빈곤하다면, 충분한 식량이 주어지지 않는 분배구조 혹은 전쟁과 같은 원인을 의심해 보는 것이다.



파주 국내훈련에서 벌어졌던 뜨거운 논쟁이 곧 나의 빈곤을 통해 내 공동체의 빈곤을 알아가고자 했던 것임을 이제서야 알 수 있었다. 문제는 우리끼리 한시간 넘도록 빈곤에 대한 얘기만 나뉘도 끝이 없는데 유스들에게 이 넓고도 광활한 빈곤의 개념을 알려주고 함께 의견을 나눠보려 하니 너무나도 막막한 것이다. (아마 최근 우리팀에게 가장 빈곤한 것은 유창한 크메르어일 것이다.) 다양한 캠페인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하나같이 어렵고 심각한 접근들 뿐이었다. 우리는 유스들이 스스로의 빈곤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에 만족하기로 했다.

*“나에게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풍족한지 생각해보는 계기”*

회의 끝에 우리팀은 플리마켓을 열어 빈곤에 대한 쉽고 가벼운 접근으로 유스들을 빈곤 논의의 울타리 안으로 끌어 들여 보기로 했다. 나름 초대장도 만들어 돌렸고 아띠타임 오리엔테이션에서도 홍보를 했다.



아무도 오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몇몇 유스들이 모여 있었다. (플리마켓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진 않았지만...) 판이 깔려있는 플리마켓에는 많이 가봤어도 내가 직접 판을 깔려니 당혹감이 밀려왔다. 앞으로 한시간만 낮잠에 철판을 깔아보자 스스로를 다그쳤다. 나는 돛자리를 펴고 유스들에게 호객행위를 하기 시작했다. 내 파우치에 넘쳐나는 화장품 샘플들을 하나씩 돛자리에 펼쳐놓자, 여자 유스들이 관심을 갖고 모여 들었다. 나는 미리 알아온 샴푸, 린스, 로션을 크메르어로 설명해주었고 그들에게 말했다. "너네가 가져온 것을 꺼내봐!!"



문제는 플라마켓의 룰에 따라 나의 물건과 남의 물건을 교환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유스들 그 누구도 자신의 물건을 들고 나오지 않은 것이다. 도희언니는 센트럴마켓 치마를, 양수오빠는 천연 비누를 호기롭게 꺼냈지만, 그에 걸맞은 거래상대는 어디에도 없었다. 유스들은 그제서야 페트병을 반으로 잘라 샵을 만들어 주거나, 돈을 하트모양으로 접어주거나, 길가에 자란 풀을 뽑아 반지를 만들어 주며 우리와 거래를 시도했다. 플라마켓을 주최한 당사자인 우리에게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밀지는 거래이지만 내어주는 수 밖에...



플라마켓을 진행하는 곳 한켠에 빈곤나무를 그려 자신의 빈곤을 적어보도록 유도했다. 생각보다 많은 유스들이 참여해주었고, 꽤나 진지하게 자신의 빈곤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 내심 뿌듯했다. 포스트잇에 적힌 꼬부랑 크메르어 글자들이 유난히 동글동글해보였다. 이번 플라마켓이 유스들에게 빈곤에 대한 생각의 물꼬를 트여주었다면 그것으로 나는 좋을 것 같다. 파주에서 했던 논쟁이 우리에게 그랬듯.

written by 망고.

# 형님들의 삼시세끼

## 청소 다이어트

### 청소

정말 이 단어는 우리의 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단어.

이곳에 오기 전,

생활규칙을 정하다 우리는 1 주일에 한 번으로 대청소 주기를 정하려다가

자신이 없어서 한 달에 최소 2 번이라고 정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 와서 1 주일에 최소 1 번 이상의 대청소를 하고 있다.

그냥 청소가 아닌,

### 대 청소

이곳에 머물렀던 지난 팀들이 어떻게 청소를 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우리의 청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처음 온 날, 멘붕에 빠졌다.

지난 팀들이 지나가고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비워진 집이기에

거미줄도 많았고 먼지도 많았고

그런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어쩌면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었을 수도 있다.

단지, 한국에서의 환경과 바로 대조되는 모습에 당황했는지 모른다.

어쨌든 첫 대청소 날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청소를 시작해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았다.

빗자루를 꺼내 구석구석 쓸었고 걸레를 꺼내 바닥을 박박 닦았고

한 번의 걸레질만으로는 부족해 2 번, 3 번의 걸레질을 했다.

그런데... 집 안의 가구들에 주욱 처진 거미줄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우리는 이왕 하는 청소 시원하게 하자고 집안의 가구(침대 빼고)를

모두 밖으로 꺼내 물을 뿌리고 걸레질하고 햇볕에 말리는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가스레인지, 냉장고 그리고 그 옆 찻장도



구석구석 정말 깔끔하게 닦았다.  
눈에 보이는 곳은 최대한 닦았다.  
땀이 눈앞을 가렸고 첫 대청소를 그렇게 시원히 마쳤다.



첫 대청소 날

이런 대청소는 이날이 마지막일 줄 알았다....

옆집 할머니가 키우시는 고양이 4 마리..  
그리고 총 몇 마리가 사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함께 살고 있는 수많은 도마뱀들,  
우리 집이 아니라  
개미집에 우리가 얹혀사는 듯한 느낌을 줄 만큼 많은 개미들.  
그 생명체들이 매일같이 영역 표시를 한다.  
조그마한 부스러기 하나라도 흘리면 개미들이 미친 듯이 물리고,  
온 집안에는 도마뱀들의 응가들이 널브러져 있고,  
마루는 항상 고양이들이.....  
하 더 이상의 말은 아끼련다. ....



너희랑 같이 살려고 우리가 얼마나 땀을 빼는지 너희는 알까

그래 이 고양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처음에는 몰랐다. 그들이 우리 마루에 볼일을 본다는 사실을.

여기 온 지 1주일 지났을까.

어디서 자꾸 지린내가 너무 나길래 설마설마했는데

평상 아래가 아주 난리가 났었다.

매번 치워도 자꾸 평상 쪽에만 볼일을 보기에

어두운 곳에 일을 보는 건가 싶어 우선 평상을 세워놓아 보았다.

실패.

평상을 세워두어도 평상 옆에 볼 일을 보길래

이미 그곳을 화장실로 인지 한 건가 싶어

어디서 본 건 있는 우리는 집안에 조그만 플라스틱 판에

모래를 채워 넣어 놓아보기로 했다.

성공이다.

고양이들이 그곳에 일을 보기 시작했다.



고양이들을 위한 모래 채우는 종수

(노약자, 심신미약자 스크롤을 재빨리 내리세요.  
다음 사진은 재빨리 스킵해주세요.)



우리가 만든 고양이 화장실에 고양이들의 첫 응가

그런데 모래를 채워 놓아도

아이들이 그곳을 화장실 겸 놀이터로 인지하는 것 같다. 자꾸 모래로 장난을 치기도 하고..

심지어 비가 많이 올 땐 그곳을 화장실로도 사용하지 않아서

비만 오면 마루가 또 난장판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1 주일에 한 번은.

아니 그 이상으로 마루의 물청소가 필요하다.

물론 집 안도 마찬가지로.



마루 물청소



물청소 후 물기 제거 과정. 이걸 확실히 우리 4 명이 함께해야 훨~~~씬 빨리 끝난다.

우리 모두 살이 빠졌다.  
양수는 운동을 매일같이 한다고 하지만,  
운동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나머지 셋은  
아마도 청소의 효과이지 않을까 싶다.

(영상으로 우리의 모든 청소 과정을 찍어놔야 했는데...  
청소에 너무 집중해서 사진과 영상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너무나 아쉽네요.....)

---

우리 마음대로 3 마리의 고양이에게 하나, 둘, 셋이라는 이름을 붙였었다.

회색 새끼 고양이가 가장 작아 막내라고 생각해 셋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셋이 보이지 않아서

할머니께 왜 셋이 안 보이냐고 물었더니

밖에서 누가 데리고 가버렸다고 한다.....

셋아... 행복해야해

메익

## 위험한 초대2

곧 그만두게 되는 썸반을 위해  
까리따스 직원들, 그리고 우덤과 탄의 가족들까지  
모두가 함께하는 파티에 초대되었다.



음식 준비를 도와달라기에 썸반, 쓰라이닉과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바로 우덤 집으로 달려갔다.  
이미 우덤집에서 레카나와 우덤은 재료를 다듬고 있었고  
우리는 그들의 지시를 받고 각자 하나씩 맡은 일을 해나갔다.



음식 준비하는 썸반



열심히 재료 다듬는 우리

김홍네 가족, 탄 가족, 까리따스 직원들이 하나 둘 우덤집으로 모였고  
우리는 상을 펴고 준비한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그리고 캔 맥주를 하나 둘 따기 시작했다.





그날의 음식들과 음료. (오리고기볶음과 돼지고기 무침)

따고, 따고, 따고, 따고 계속 캔 맥주가 쏟아져 나왔다.  
 난 술을 잘 못하기에 처음부터 환타, 콜라, 사이다를 마셨지만  
 나머지 팀원들은...  
 다 받아 마셨다.

여기서는 한 번도 술을 진탕 마셔본 적이 없다.  
 유스들과의 파티에서도 술이 없어도 춤을 추고 놀았고  
 우리끼리도 술 판을 벌인 적이 없으니까.



이날이 지금까지 우리 팀이 마신 술 중 가장 많은 양을 마시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날 생각했다.

일주일 후가 우뜸네 둘째 딸 유비의 생일이었기에  
 우리는 다음 주에도 보자며 생일파티에 초대받았다.



삐싸이와 홍이도 즐겼던 그날

그때 알았어야 했다.  
이곳 돌잔치의 끝이 무엇인지.....

일주일 후 돌아온 유비의 첫 생일!  
우덤은 이 날 아침부터 까리따스에 나오지 않았다.  
우리식으로는 월차 같은 것을 낸 것 같은데,  
아마도 유비 생일 준비 때문이었나 보다.  
아침부터 우덤은 풍선을 붙어 집에 붙이고,  
음식도 준비했던 것 같다.  
역시 딸바보 우덤



우덤이 미리 준비해 놓은 음식들

6시 30분, 약속된 파티 시간이 되었고  
우땀 동생, 우땀 친구, 탄 부모님, 탄 가족, 홍이네 가족, 마을 사람들 등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유비의 첫 생일을 축하해주었다.  
한 분 한 분 준비한 선물을 유비에게 주거나,  
현금을 유비 손에 꼭 쥐여주었다.  
한국의 돌잔치와 그렇게 다른 풍경은 아니었다.  
돌잔치에 돌잡이가 없다는 게 다르다면 다른 점.



저번 주 파티 때, 다들 소주를 원했었기에 유비의 선물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따로 소주 2 병 그리고 막걸리 1 병을 준비했다.  
아이들이 많았고 케이크가 놓인 상 위에는 음료수가 있어서  
소주와 막걸리를 든 손이 민망해졌었지만,



유비 생일상에 놓인 막걸리

그것도 잠시.  
케이크의 초를 끄고 나서 상을 치우고  
드디어 본격적인 파티가 시작되었다.



진짜 파티는 지금부터

바닥에 돛자리를 깔고 그곳에 앉아 우덤네가 준비한 음식들을 먹으며  
모두 캔맥주를 따르고 마셨다.  
서로의 소개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었고  
돛자리 위에서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한 캔, 두 캔, 점점 주변에 빈 캔이 쌓여가고  
사람들은 점점 흥이 올랐다.



달 최고 흥부자,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도 저렇게 흥이 넘친다.

아이들을 재우고 애 엄마들도 우리의 돛자리 파티에 참여했다.  
사실 우덤의 아내, 레아는 승연이와 아주 쿵짝이 잘 맞는 술친구다.  
많은 횃수 그녀와 함께한 막내는 아니지만,  
첫 '짠' 그 경쾌한 소리와 함께 그들은 알아차렸다.  
서로가 좋은 술친구라는 사실을.



너와 난 소울메이트? 수울메이트!

레카나는 승연이와 계속 잔을 외치며 연신 원샷을 해댔고,  
레카나의 동생의 남편, 홍이 아버지는 계속 원샷을 하시며  
우리의 잔이 비워져있지 않으면  
계속 자신의 잔을 흔들며 빨리 마시라고 재촉했다.

이때부터였을까,  
파티가 힘들어졌던 순간이. 집이 갑자기 그리워졌던 순간이.  
사실 언제부터라고 말할 수도 없다.  
그들은 계속 원샷이었으니까.....



우리 팀에선 그나마 술이 썩 양수가  
컨디션 난조로 제일 처음 give up 을 외쳤고  
레카나 옆에서 계속 그녀를 상대하던 승연이도  
손사래를 치며 백기를 들었다.  
2 명이 사라지자 타깃은 나와 종수로 바뀌었다.

나는 술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계속 환타만 마시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취하자 그 사실을 잊었나 보다.  
나와 종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모든 이들의 공격을 받다가 결국 우리 팀원 모두 game over 되었다.



우리 집 화장실은 그날 밤 불이 꺼지지 않았다.  
이유는 생략하겠다.

우리의 다짐.  
다음부터 모든 party 는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자.

## 메익 살롱~ 2탄!

캄보디아에 와서 두 번째로 오픈하는 메익 살롱~~~



맑디 맑은 캄보디아 하늘 :)

오늘처럼 화창한 날  
내가 구입했던 바리깡(?)을 들고  
다 같이 마당으로 나갔다.  
오늘 내 머리를 다듬어 주실 분은  
메익 살롱의 점장님이신 메익 선생님!!!  
메익 선생님께서 오늘도 내 머리를 다듬어 주셨다.



내 머리를 다듬어 주시려는 메익 선생님



메익 선생님께서 오늘은  
아무 탈 없이(?) 머리를 이쁘게 다듬어 주셨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손님!  
우리 쑤쑤형이 아주 대단한 결심을 했는데...

바로

수개월 동안 길러온 머리를 시원하게 다 밀어버린다고 한다...

일명

'반! 삭!'

시원하게는 보일 것 같은데.....  
내가 오히려 걱정부터 앞선다...



우선 머리를 깎기 전에  
쑤쑤형의 소감 한마디를 들어보려 했으나  
쑤쑤형은 마음이 바뀌기 전에 빨리 머리를 밀어달라고 한다.^^  
그래서 내가 과감히 밀어 버렸다 ㅎㅎ;;



열심히 밀어주는 나~

으....

바리깡이

왕~~~

소리를 내며 한번 지나갈 때마다

우수수 떨어지는 머리카락들....



그리고 어느 순간 머리를 자르던  
의자 밑 바닥은 잘린 머리카락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무사히 쑤쑤형의 반삭은 성공적으로 됐다!  
내가 봐도 정말~ 시원해 보인다.ㅎㅎ  
(하지만 나는 절대 안해야지~ㅋㅋ)



아주 시원하게 보이는 쑤쑤형~~~  
이번 캄보디아에서의 생활은 아주 시원하게 보내겠지?~ㅋㅋ

**우린 YDP한다**

우린 YDP한다

## YDP-English class!!

아띠타임 오리엔테이션 때 유스들에게 우리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었더니, 많은 유스들이 영어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연습하고 싶어 했다. 영어 회화는 나도 자신이 없지만, 같이 공부해보자는 마음으로 수업을 준비해보기로 했다.



자기소개하기, 좋아하는 색깔 말하기, 취미 소개하기, 얼굴 묘사하기 등등 알고 있는 게임들을 총동원해서 어떻게든 유스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우리는 안간힘을 썼다.

또 확실히 혼자 수업을 진행하는 것보다, 유스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함께 대화하며 영어로 말하도록 유도하니 수업이 훨씬 흥미진진하게 흘러갔다. 처음엔 부끄러워하던 몇몇 유스들도, 시간이 흐를수록 적극적으로 대답해주었다.

수업을 진행하는 사람 못지않게, 앉아 있는 팀원들의 역할도 중요했다. 흩어져 앉아 진행자가 미처 케어해주지 못한 유스들에게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물어본 질문에 조금이라도 재미있게 대답해주면 훨씬 진행자가 부담을 덜 수 있고 수업 분위기도 더 좋아진다.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대답 잘하는 학생들을 유난히 예뻐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어느 날은 수업을 끝냈더니 때마침 비가 쏟아졌다. 우덤과 니꾼, 쓰라이네악, 러띠와 우리 넷은 교실에 갇히고 말았다.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비가 퍼붓더니 설상가상 정전까지 왔다.

어두컴컴한 교실 안에서 우리는 우덤의 핸드폰 불빛에 의존하며 손바닥 쌓기 게임을 시작했다. 한두 개의 캄보디아 게임을 배우고, 우리도 그들에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가르쳐 주었다.



초등학생 시절, 나는 내가 생각해도 꽤 괜찮은 사촌 언니이자 누나였다. 명절에 할머니 집에 가족들이 모이면 유치원에 다니는 사촌동생들과 얼음 땡,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술래잡기를 하면서 놀았는데, 사실 동생들과 놀아주는 건 어느 정도 핑계였다. 신분은 초딩이었으나 마음은 유치원에 머물러 있었는지, 여전히 그런 유치한 게임들이 재밌었다. 또래 친구들과는 놀림당할 게 뻔한 그런 유치한 게임들을, 사촌동생들과는 놀아준다는 핑계로 할 수 있었다.

유스들과 오랜만에 이 게임들을 하니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너무 오래된 일이라 빛이 바래, 사촌동생들의 옛된 얼굴도, 할머니 집도 희미하게 기억이 날 뿐이지만 그때 내가 느꼈던 유치함에 대한 향수, 동생들에게 어른스러워 보여야 한다는 부담감은 생생하다.



여전히 비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만 빗줄기는 한풀 기가 꺾여 많이 가늘어진 상태였다. 유스들과 우리는 물이 찬 까리따스를 휘적휘적 가로지르며 그날의 작별을 고했다. 집에 돌아와 촛불을 켜놓고 팀원들과 둘러앉아 얘기하다가, 그 주 일요일이 귀국 d-100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CDP와 아띠타임을 시작하면서 생각보다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고, 우리는 내심 기뻐했다. 동시에 나는 한국에 돌아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하게 된다면, 나에겐 어떤 기억이 먼저 떠오르게 될지 궁금해졌다. 명절 기름냄새가 진동하는 할머니 집에서 사촌동생들과 함께 한 기억일지, 어두컴컴한 까리따스에서 유스들과 함께한 기억일지.



written by 망고



우린 YDP한다

Let's Enjoy Korean!



YDP 의 시작.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시작은 어렵지만 한번 하면  
다음은 더 쉬워지고 또 더 쉬워지고 그런 의미이다.

하지만 나에게 Atti Class 는 처음이든 두번 째든 세번 째든  
정말 어렵다.

아마 우리 팀원들도 같은 생각일 것이다.

나는 수업 경력이 많은 편이다.

하지만 그 경력은 여기와서 한줌의 재가 되어 버렸다.  
크메르어를 잘 못하는 나에게 한글이라는 이 어려운 언어를  
쉽게 전달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15기 팀들이 한국어 수업을 했다고 해서  
그나마 조금은 알 거라는 희망도 다 사라졌다.  
학생들은 아무것도 몰랐다. 어쩌면 당연했다.

내가 국내 훈련때 크메르어를 배웠어도  
여기에서 하나도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닐까?

나는 이 친구들에게 한국어를 제대로 알려 주고 싶었다.  
적어도 우리가 한국에 돌아갔을 때 이 친구들이 한국어로 인사를 하며 꼭 다시 보자고 이야기  
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수업을 재밌게 하고 싶었다. 강제가 아닌 이 친구들이 스스로 재미가 있어서 찾아오게  
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고 싶었다.

하지만...



*“두마리의 토끼를 잡는건 정말 쉬운게 아니었다.”*

수업을 진행 할 수록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었다.  
이유는 전공 수업을 듣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에서  
아따 수업을 연달아 들으니 그것이 스트레스가 된다고 했다.

그때 느꼈다. 아 우리가 준비한 수업이 스트레스 일 수도 있겠구나.  
수업이지만 즐기는 수업, 재미있는 수업을 만드는 것에 실패했구나.

문득 이런말이 떠오른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이유를 알았으니 더 생각하고 여러가지 시도를 해보고  
더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노래도 넣고 춤도 춰보고 같이 게임도 하고  
재미와 동반하는 수업을 만들어 볼 것이다.

나는 이 학생들에게 항상 기대할 것이다.  
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 하지만 기대가 없이는 노력 할 수도 없다.  
그리고 우리와의 만남이 나중에 이들에게 좋은 기억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 할 것이다.

우리에게 대해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좋은 친구들이다 라는 표시가 아닐까?



By 수수

우린 YDP한다

## 잔치국수/쿠킹타임2

2 번째 맞이하는 쿠킹타임!

유스들은 우리와 함께하는 쿠킹 시간을 엄청나게 좋아하고, 또 그 시간을 기다린다. 월요일마다 그 주의 수업계획을 게시판에 붙여놓는데 쿠킹클래스가 없으면 언제 쿠킹클래스 하나고 찾아와서 물어볼 정도이다. 그래서 준비했던 잔치국수! CDP 필드를 다녀오자마자 바로 국수에 사용될 면과 멸치, 무, 간장, 쪽파를 챙겨 까리따스 식당으로 나섰다.



준비한 재료들로 우선 육수를 내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시간을 잘못 생각했었다. 자고로 육수는 오래 끓여야 맛있는데, 아침에 필드를 나가는 관계로 진한 육수를 내기에는 시간이 부족했고 그래서 육수 맛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얇았다.



육수 간을 맛본 우리는 정말 실패작이라고 생각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은 국수를 내놓게 되어 유스들에게 정말 미안했다. 하지만 이게 웬일인지 유스들은 엄청나게 잘 먹었다. 심지어 육수를 내고 남은 멸치와 무도 건져서는 맛있게 먹고 있었다. '츄안 나! 츄안 나!' (정말 맛있어! 정말 맛있어!)





층안~~~ 층안나~~



빨대로 남은 국물까지 쭉쭉



엇층안이라면서 2 그릇이나 먹은 우덤



그들의 증안이 진짜로 맛있다는 표현인지,  
근심 가득한 우리의 표정을 풀어주기 위한 증안인지 아직도 의문이지만 어쨌든 2 번째  
쿠킹타임도 무사히 종료 :



)



우린 YDP한다

## 다~알링

12월 졸업 대상자들은 벌써부터 취업을 위한 인터뷰를 다니느라 바쁘기 때문에 아띠타임의 참석자들이 점점 줄고 있다. 10월 31일 월요일, 한국어 수업이라고 예정되어 있던 날, 우덤, 러티, 니꾼 단 3명이 우리를 찾아주었다. 그들이 봐도 학생 수가 너무 적은지 다들 적지 않은 당황의 표정을 보였고 우리 중 양수의 표정은 실망감으로 가득 찼다. 수업시간 몇 시간 전부터 까리따스에 나가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붙잡고 오늘 5시에 한국어 수업이 있으니 오라고 홍보했었기 때문이다.

'엇 으리은, 달링 달링' 크메르어가 부족한 우리를 위해 정말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는 단어들로만 조합해 우덤은 외쳤다!

'오늘은 공부하지 말고, 산책이나 가자!'

그래서 우리는 나섰다. 목적지는 블랙호 파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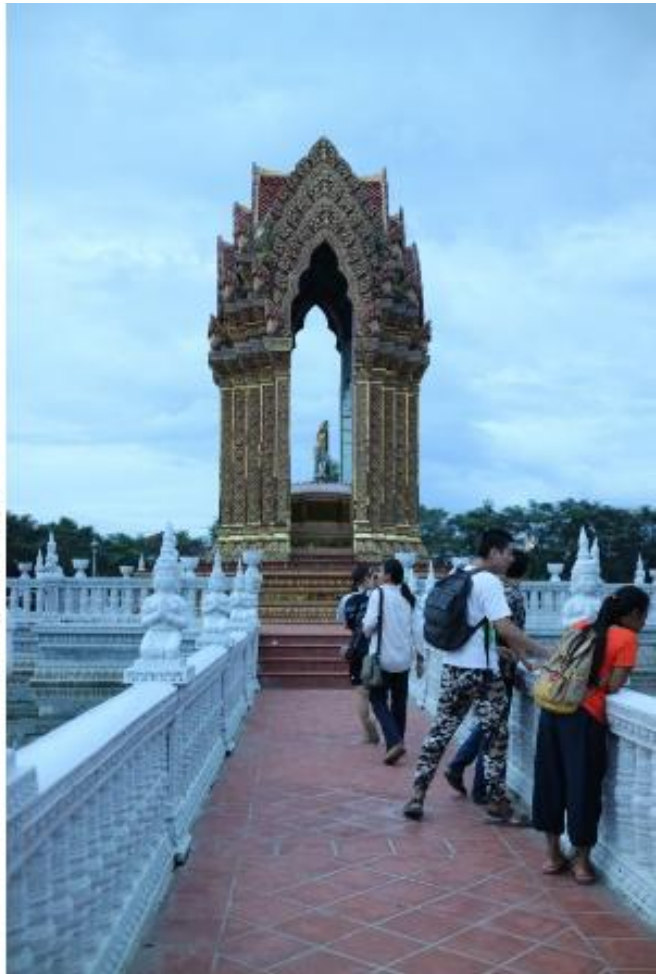
cdp 필드를 오고 가며 지나치기만 했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는 우리의 말에 그들은 그곳을 목적지로 정했고 힘차게 우리는 걸어갔다.



레츠고!



그들과 함께이지 않았더라면, 알 수 있었을까. 가는 길에 내가 좋아하는 시장도 지나고, 길가에 줄지어있는 음식점들도 보고, 매일 마주치는 우리지만 그래도 한번 더 눈 맞추며 대화를 이어가고, 말은 통하지 않아도 아니 완벽하지 않게 통해도 그것마저도 웃기다며 깔깔대며 웃다가 이해가 안 되면 얼굴에 물음표를 띄웠다가 또 웃다가. 그렇게 우리는 파고다에 도착했고 저녁노을이 지고 있는 파고다는 아름다웠다.





연못 속 물고기들 구경하느라 정신없는 양수와 러티



쥐띠 니꾼~



돼지띠 친구들~



원숭이띠 친구들~



학생들이 많은 수업이 성공적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내심 뿌듯했는데 오늘 우리는 생각했다. 수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수업이라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이 날을 계기로 11 월 수업을 계획하면서 'hang out' 이라는 특별한 수업도 종종 넣어보고자 한다. 가끔은 책상에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운동하고 싶으면 운동하고, 뭐 그래도 공부가 하고 싶다면 공부하고, 그때 그때 마음 가는 대로, 발 길 가는 대로 떠나볼까 한다.



우린 CDP도 한다

## 느낌이 좋다

Community Development Program, 줄여서 CDP 는 이전 기수들에 이어 우리 팀에게 주어진 핵심 임무이다. 4 명의 농부들을 도와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기반을 만들어 주고 이를 통해 생산된 유기농 제품을 팔아 지역사회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건강한 음식, 친환경적인 농업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일이다. 이전에 일부 농부들이 경제적 혜택만 노리고 농사일은 제대로 하지 않는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신중을 가하여 농부를 선택해야 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는 총 9 명의 농부들의 밭을 직접 방문하였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그들의 경제적 여건, 농사일 대한 의지, 그 외 보유하고 있는 자원 등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였다.



땅의 크기, 수도시설, 경제적 여건 등의 물질적인 조건이 선별 작업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시 여겼던 것은 농부 스스로 CDP 의 목적을 이해해서 우리가 떠난 뒤에도 농사를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사람의 의지라는 것이 측정 가능하여 이 사람 것과 저 사람 것을 저울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크메르어를 하지 못해 대화에 끼지도 못하는 우리는 더더욱 판단을 내리기 어려웠다. "9 번 농부가 좋았어. 그냥 느낌이 좋아서..."

준비했던 체크리스트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순간이었다. 회의 중 누군가가 내뱉었던 이 무책임하고도 비이성적인 의견에 우리는 결국 순응할 수밖에 없었다. 모두 같은 것을 느꼈던 걸까. 내가 9 번 농장에서 느낀 것은 사실 그다지 특별할 것도 없었는데 말이다.



우리가 갔던 9 번 집 옆에는 넓은 강이 흐르고 있었고 집주인 아저씨는 카누처럼 생긴 기다란 배를 능숙하게 노질하며 등장하셨다. 호기심 많은 우덤이 주변에 있던 낚시 망을 강 속에 던져 모두의 주목을 받으며 신이 나 했고, 기대에 차 낚시 망을 들어 올렸지만 안은 텅 비어있었다. 물고기 몇 마리쯤은 식은 죽 먹기 아니냐는 듯, 우리는 우덤을 우우 거리며 놀릴 수 있었다. 주인아저씨의 딸아이는 17 살이었고 한국에 관심이 많아 나에게 유창한 한국 발음으로 "이름이 뭐예요?"라고 물어와 화들짝 놀라게 만들었다. 그녀의 동생은 자기 몸보다 커다란 노를 들고 물장구를 쳤다. 도희 언니와 내가 아무리 인사를 하고, 나이를 묻고, 장난을 쳐도 그 애는 시종일관 시크한 표정으로 응답했다. 오빠들은 옆에서 당을 듯 말 듯 대통령 걸려 있는 열매를 따기 위해 가방까지 던져 놓고 뒤편박질을 하고 있었다. 이런 부산스러운 분위기에서도 주인아저씨는 카리스마 넘치는 표정으로 우덤과 꽤나 진지하게 대화를 주고받았다.

최종 선별을 위한 회의는 길지 않았다. 다행히 우리 팀의 의견과 까리타스, 유스들의 선택이 동일했다. 9 번 농장에서 우리는 모두 '어떤 것'을 느꼈고, 그것은 선택의 이유로 충분했다. 9 번 집의 트인 강에, 카리스마 넘치는 주인아저씨에게, 오랜만에 한국어를 말하게 해 준 여자아이에게, 그리고 차가운 표정 아래 부끄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던 그녀의 동생에게 우리는 형용할 수 없는 느낌을 받았다. 그것으로 됐다. 느낌만큼 근거 없으면서도 확실한 것도 없다.

written by 망고



우린 CDP 도 한다

## 우리들의 CDP 적응기

이곳에서 우리가 하는 주된 활동 중 하나는 CDP 활동이다.

우리는 날씨 조건이 따라 준다면 매일 오전에 활동을 하러 마을로 간다.

날씨가 따라 준다면.....



우리가 이곳에서 처음 한 CDP 활동은 관계자들과의 미팅이었다.

우리가 가야 할 마을 주변의 담당자분 집에서 회의를 했다.

CDP 관계자들을 만나 각자 소개를 한 뒤 앞으로의 CDP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회의를 했다.

현지 분들의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라 회의에 사용되는 언어는 당연히 크메르어였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크메르어가 익숙지 않아 회의의 내용을 전혀 알아듣지 못 했다. 그래도 우리를 위해 봉끄다이와 탄이 영어로 부분부분 통역을 해 주어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회의하는 동안은 대화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답답하고 살짝 지루했다.



첫 CDP 회의

다음으로 한 활동은 우리가 앞으로 활동하게 될 마을을 견학했다.

이 마을의 첫 모습은 내가 어렸을 때 자주 갔던 외할머니 댁 마을과 많이 비슷했다.

정겨운 집들과 우리가 지나갈 때 밝은 미소로 인사하시는 마을 분들과 아이들, 그리고 집에서 기르는 소와 닭 같은 많은 가축들.

정말 맑고 아늑하게 느껴졌다.



마을 입구의 정겨운 풍경

이 마을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바로 엄종 할머니다. 할머니는 우리가 활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많은 도움을 주신다.



밝은 미소로 우리를 맞이해주시는 엄종 할머니

할머니 댁에는 우리를 아주 좋아하고 너무 활기찬 개 두 마리가 있다.

우리가 차를 타고 할머니 댁에 도착하면 개 두 마리가 우리가 온 것을 알아차리고 차 주변을

멤돌며 반길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리면 우리들에게 달려들어 애교를 부린다.

마구 펄쩍펄쩍 뛰면서 우리에게 점프며 반긴다.

처음에는 개 두 마리가 많이 무섭고 힘들었지만 지금은 두 마리가 안 보이면 너무 허전하게 느껴진다.



우리를 좋아하는 할머니 댁의 개 두 마리

우리는 할머니 댁에서 마을 분들과 서로 소개를 하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곳에서도 크메르어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탄과 솜반이 많은 도움을 주어서 어렵פות이 이해할 수 있었다.

회의를 한 후 주변을 돌아다니며 마을 구경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주변 풍경들이 정말 아름다웠고 정겨웠다.



할머니 댁에서의 회의와 마을 주변 구경

우리가 마을에서 하는 본격적인 CDP 활동은 밭을 갈 거나 밭에 뿌릴 거름을 만들며 농가의 일을 돕는다.



위의 사진은 우리가 담당하는 K-farmer 집에서 밭에다 뿌릴 거름을 만드는 사진이다. 거름에 들어가는 재료들은 우리가 마을에 오기 전 사온 쌀겨와 재 가루 같은 검은색 가루, 집에서 기르는 소의 변들, 그리고 주변 나무에서 수확한 나뭇잎들이다. 이 모든 재료들을 골고루 섞은 후 물을 뿌려준 다음 거름이 마르지 않도록 두꺼운 천이나 비닐로 덮어 두어 약 15 일가량 숙성을 시켜준다. 정말 화학제품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천연 비료이자 좋은 영양분이다.



거름을 만드는 사진들



밭을 가는 우리들

이곳의 날씨가 맑고 농지 상태가 괜찮다면 우리는 매일 같이 CDP 활동을 하러 갈 수 있다. 그러나 요즘 같은 우기에는 하루에 한 번 꼴로 비가 오는 탓에 CDP 활동을 매일 갈 수 없다. 이유는 낮에는 비가 와서 활동을 못하거나 농지가 물에 잠겨 활동을 하지 못한다. 농지의 배수로로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해결 방법이 없다. 그리고 다른 마을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강물이 넘쳐 마을에 홍수가 나 마을로 들어갈 수조차 없다.



홍수로 인해 잠긴 농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다.  
 어쩌면 해결 방법이 없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많이 아쉽다.  
 홍수와 폭우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앞으로의 CDP 활동들을 할 수 있을 텐데...  
 앞으로 우리가 활동을 할 때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제1구역, 캄보디아

## 따끄마으 맥주 축제

따끄마으 모알 뚠레(강변)에서 TUBORG 라는  
맥주 회사가 진행하는 맥주 페스티벌을 했다.  
나는 음악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꼭 가고 싶었고  
피곤한 하루에 지친 팀원들은 갈 수가 없어서 혼자 가게 되었다.



도착은 했는데 자리가 너무 컸다.  
테이블이 컸고 의자가 6 개씩 놓여 있었다.  
나 혼자 앉기에는 너무도 커서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3

0 분을 그냥 뱅뱅 돌았다.  
그러던 순간 누가 날 불렀다.

*'Hey! Come here! sit down!'*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앉았다.  
순간의 어색함도 맥주의 건배 한번이면 사람들이 웃었다.  
내가 느낀 캄보디아 사람들은 다 친절하고 배려를 잘한다.  
여기 같이 먹었던 이 친구들도 역시 그랬다.  
외국인 효과가 있어서 그럴수도 있지만 사람들은 날 좋아했고  
먹을 것을 주고 이야기를 할 때 마다 웃었다.  
나 또한 그냥 얻어먹기는 미안해서 큰 맘 먹고 5 달러 짜리  
오징어 야채 구이 2 마리를 사서 같이 먹었다.

아쉬운건 나는 전자제품을 PMP 를 제외하고는 하나도 들고 가지 않았기에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친구들의 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사진을 받기 위해 페이스북 친구를 하게 되었고  
그 친구들이 올린 사진을 내가 가지고 와서 지금 쓰고 있다.





전에도 말했지만 캄보디아 사람들은 춤을 좋아한다.  
나 역시 춤을 잘 추는 것은 아니지만 춤 추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이 필링이 충분한 이 캄보디아 식 춤 문화는  
*내가 사랑하는 문화중 하나이다.*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할 때 마다 우리는 일어나서 같이 춤을 추었다.  
때로는 느긋하게 때로는 빠르게 춤을 추면서 웃었다.  
그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가 되는 순간이라고 나는 느꼈다.  
헤어질 때 정말 아쉬웠지만 또 다른 만남으로 행복하길 기대한다.

-By 쑤쑤-

## 본옴뚝(물 축제)를 보고 나서.

캄보디아. 그것도 우리집과 정말 가까운 프싸 따끄마으(따그마으 시장) 근처의 모알 툄레(강변)에서 본옴뚝(물 축제)라고 불리는 축제를 했다. 나는 솜반과 우덤 그리고 니꾼과 같이 물 축제를 구경했다.



프놈펜에 비해 아주 작은 강변거리 였지만 사람은 엄청나게 많았다. 그 뜨거운 햇살 아래서 사람들은 옴 뚝 브러낭 크니어(카눗 경주)를 보기 위해 강변에 다 서 있었다. 양산을 들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 더운 날씨 속에서도 사람들의 관심은 대단한 것이었다.

솔직히 나는 정말 참기 힘들었다. 그날 따라 유독 구름없이 맑은 햇빛이 나를 너무 덥게 했을 뿐더러 사람들이 모여있으니 그 열기는 더 참기 어려웠다. 심지어 멀리서 보는 그 카눗 경주를 무슨 재미로 보는지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았다.



문화에 대한 이해의 차이.

평소 잘 느껴 보지 못했던 것을 이때서야 느낄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생각을 바꿔서 사람들을 구경했다.

부부와 아이들, 커플, 친구, 그리고 많은 노점상과

구걸을 하는 할아버지 등..

그들은 나와 다르게 즐거워 보였다.

그런 그들을 보고 있으니 나 역시 기분이 좋아져서 웃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사실 축제란게 뭐 별거 있나?

사람들끼리 즐거우면 그게 다 축제지



카눛 경주에 이어 우리는 프놈펜 스타디움으로 달려갔다.

정확하게 정의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가 본 캄보디아 사람들은 축구를 정말 좋아한다.

이 날은 마침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국제 경기였고

경기를 시작하기 4 시간 전부터 사람들이 바글바글했었다.

경기장엔 스크린이 없었다. 직접 눈으로 다 봐야했다. 바닥은 돌이었다.

제일 위쪽과 아랫쪽에서는 아이스박스에서 음료수나 술을 팔고 있었고

노점상분들께서 돌아다니면서 팝콘, 과자, 떡, 튀김, 망고등 여러가지

먹을 거리를 팔고 있었다.

캄보디아의 응원엔 나를 참 신나게 했다. 일어나서 춤을 추는 것이다!

나 또한 3 시간 동안 앉아있는게 힘들었고 그래서 앞쪽으로 나가 같이 춤을 추었다. 음악 역시

클럽음악을 국제경기장에서 틀어주었다.

같이 파도타기를 하고 먹을 것을 같이 먹고! 심지어 경기도 이겨서

정말 좋았다!



물축제의 마지막은 불꽃놀이!!!!  
정말 좋았던 점이 있다면  
캄보디아는 산이 없고 높은 건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마을에서도 불꽃놀이를 관람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 불꽃을 보고 좋아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나도 기분이 좋았다.

By 쑤쑤

# 개인 에세이

-쭈쭈-

두번째 나의 에세이

어느덧 캄보디아에 온지도 두달이 흘렀다.

하루하루는 저 높이 솟아오른 코코넛 나무처럼 길지만 돌이켜본 두달은 정말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 버렸다.

다시 생각해보니 처음 한달은 편안했다면 이번 한달은 정신없이 계속 무엇인가를 해온 것 같다.

CDP 활동. 즉 농사활동부터 시작해서 YDP 활동인 한국어와 영어 수업, 그리고 Cooking Class 등등

많은 활동들을 했고 피드백중이며 새로운 계획도 논의와 진행 중이다.

활동들을 하다보니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었다. 특히 YDP수업을 할 때 처음과 다르게 점점 수가 줄어드는 학생들을 보면서 실망하기도 했고 좌절하기도 했고 또 고민도 많이 했었던 것 같다.

재미를 추구하고 단순함을 추구한다면 많은 학생들이 듣게 할 수는 있겠지만 정작 남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하니 전혀 없을 꺼라 생각이 들었다. 재미와 배움 둘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계속해서 생각중이다.

캄보디아는 하늘이 정말 이쁘다. 특히나 구름을 보고 있으면 정말 광활하다라는 생각이 든다. 한국과는 다르게 캄보디아의 구름은 정말 거대하고 그 모습이 선명하게 보인다. 마치 구름공장이 있고 그 공장에서 구름을 계속해서 생산하는 것 같다. 먹구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늘을 꽉 채우고 있는 하얀 구름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낀다.

또 하나. 캄보디아 날씨는 알 수가 없다. 화창하다가도 비가 오고 햇빛이 있는데도 비가 오고 먹구름으로 가득 차 있다가도 금방 없어지는 이 날씨는 참 짐작하기 힘들다. 그래도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번은 비가 오는 편이고 요즘은 이 날씨에 잘 적응하고 있다.

생각보다 그렇게 덥지는 않다. 12월까지 계속해서 시원해 진다고 하니 정말 좋은시기에 왔구나 라는 생각도 한다. 내가 여기 사람들에게 징검다리가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징검다리 중의 하나의 돌이라도 되기를 바라면서 남은 3개월 열심히 살아보아야 겠다!

## -메익-

씨엠립 여행 중에 '어, 이거 우리 집에 있는데!' 막내가 말했다. '그건 당연히 우리 집에도 있어.' 내가 대답했다. '아니~ 깐달 우리 집!' 이제는 '우리 집'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우리 집이라고 하면, 항상 대한민국 광주광역시에 있는, 내가 캄보디아로 떠나기 전에 살았던 그 집만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우리 집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다른 집이 생겼다.

점점 '우리'라고 함께 칭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10 월부터는 CDP 활동도 시작하게 되어서 점점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우리를 손자, 손녀들처럼 예뻐해 주시고 귀여워해주는 할머니 할아버지 덕들도 매일 가고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 그 중에서도 첫날부터 내 손을 잡아주시던 엄종 할머니덕은 그 집에 살고 싶을 정도로 아주아주아주 아주아주아주 좋다.

좋다고 말하기도 전에 그 순간이 훑 지나가버리고, 누군가에게는 그 순간들이 그저 지나가는 순간들일 수도 있지만, 나에게는 그 순간들이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설렘과 애뜻함으로 남아있다. 그냥 난 그 순간들이 너무 좋다.

9 월, 정말 '내' 생각만 하다가 시간이 흘렀다. 내 생각만 하다 보니 내 집, 내 가족, 내 공간, 내 시간들, 내 물건들 등 한국에서의 내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지배했고 한국이 그리울 때가 점점 많아졌었다. 10 월은 유스들과의 시간이 많아지고 CDP 활동도 시작되다 보니 내 곁을 내어주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들과 점점 정이 들어가고 있고 '우리'가 되어가고 있다. 내가 '우리'라고 칭하는, '우리'라고 수식하는 것들이 많아질수록 사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이 마냥 신나지만은 않아지고 있다. 그들과의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니까.

이곳에 온 목적이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인 팀원이 있다. 난 만남이 지원동기가 아니었고, 새로운 만남에 대한 로망도 없었다. 하지만 이곳에 온 목적이 만남인 팀원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도 더 새로운 만남을 즐기고 있는 것 같다. 물리적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한국의 우리 집 화장실이 기억나지 않고 있다. 내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이곳에 벌써 취해 한국을 잊어가고 있는 건지. 그 어떤 이유가 되었든 내가 이곳에 점점 물들어가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쫄쫄-**

이번달에 내가 느낀건...

흠...

이번달에는 많은 생각을 하게된 달인것 같다. '사람이란?' 생각들...

사람의 본성?이라는 생각들? 등 여러가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보았고 또 그것들을 생각 했을 때의 나의 변화?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한국에 있을 때 내가 여러 사람을 만나보면서 '사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많았는데... 여기서는 한국에서 생각했던 것과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는데 이곳에서의 생활을 하면서 나의 본성?, 본연의 모습?들을 알게 되었다.

내 자신이 많이 게으르고 일들을 뒤로 미루려 한다는 것을 많이 느꼈다.

점점 생각이 많아지고.....나에 대해 많이 알아가는 중이다.

**-망고-**

"음미하지 않은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 근데 음미해버린 인생은 딱히 매력이 없지."

- 영화 <카페 소사이어티> 중 인용

누군가가 물어왔다. 한국에서의 6개월보다 캄보디아에서의 6개월이 더 의미있는 것 같냐고. 어떤대답을 해야할 지 고민하기도 싫었다. 선택에 대한 의미를 찾는 것만큼, 삶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은 없다.